

(재)오산문화재단  
상주단체 공연시리즈II

어린이 · 청소년 오페라의 거장  
벤자민 브리튼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공연

영어오페라 **굴뚝 청소부 쌤**  
*The Little Sweep*

성서오페라 **노아의 방주**  
*Noye's Fludde*



2013. 11. 2 | 토 | PM 3:00 / 7:30 오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주최 | 오산문화재단 OSAN CULTURAL FOUNDATION | KCO 코리아네임버오페라단 | 주관 | 6법원 경기 예술진흥원 Gyeonggi Arts Foundation, Incorporated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세계속의 경기도 Global Cooperation | 경기문화재단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 교육도시 오산 City of Education Osan  
 협찬 | YAMAHA | 평택어린이학동원 (주)부광자원 (주)태성정보위성통신 (주)한양엘레베이터 창대기업

티켓 |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할인 | (오해피)회원 30% / 20인단체 20% / 제휴카드 할인 10% (신세계 이마트 포인트카드, 도서관회원증, 스포츠센터회원증) / 65세 이상 경로우대할인 30% / 국가유공자, 장애인 할인 50% / I-plus카드 2자녀 10%, 3자녀 20% / 그린카드 소지자 20%  
 예매 | www.osanart.net 031-379-9999  
 문의 | 오산문화재단 031-379-9999 코리아네임버오페라단 070-7769-7879 **5세이상 관람**

# 영어오페라 **굴뚝 청소부 쌤** & 성서오페라 **노아의 방주**

2013년부터 (재)오산문화재단 상주단체로 활동하는 코리안체임버오페라단은 지역의 청소년 및 오페라팬을 위하여 벤자민 브리튼의 <굴뚝청소부 쌤>과 <노아의 방주>를 두번째 작품으로 준비하였습니다.

##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프로그램

공연장의 지속적인 좋은공연 확보와 안정적인 창작공간 확보를 통한 예술단체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이 후원하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프로그램에 오산문화재단과 코리안체임버오페라단이 2013년부터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산문화재단과 코리안체임버오페라단은 심도있는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유치하여 오산시민의 문화 예술 향유를 돕는 동시에 오페라의 대중화와 예술애호인 개발 및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오페라 즐거리 **어린이·청소년 오페라의 거장 B.Britten**

**굴뚝청소부 쌤 The Little Sweep** 생일 파티장소에 모인 아이들과 어른들은 어느 할머니께서 들려주셨다는 옛날이야기를 오페라로 만들어 보기로 한다. 드디어 오페라 막이 오르고.. 1810년 12월, 영국의 추운 겨울날 학교 기숙사에 굴뚝이 막혀 굴뚝 청소부들을 부르게 된다. 청소부들은 좁은 굴뚝을 뚫기 위하여 쌤(Sam)이라는 어린 소년을 굴뚝 속에 밀어 넣고는 외출해 버린다. 굴뚝 청소의 경험은 없으나 병든 아버지를 위해 청소부를 자칭한 쌤은 굴뚝 속에 갇혀 공포에 떨게 된다. 때마침 기숙사 여거지기서 숨박꼭질놀이를 하던 학생들에게 발견되고 그 학생들은 굴뚝에서 쌤을 구출하여 청소부들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 지혜를 모은다. 학생들의 지혜로 굴뚝 청소부들과 가정부 바곳(Baggot)을 멋지게 따돌린 후, 쌤은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의 장난감 가방에 실려 굴뚝 청소부들에게서 벗어나 무사히 탈출하여 그리운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게 된다.

**노아의 방주 Noye's Fludde** 이 오페라는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6장 ~ 9장의 이야기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려 하시고 의인 노아를 찾으신다. 노아는 세상의 온갖 조롱과 멸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 아들들(셈, 함, 야벳)과 함께 산책대기에 길이 140미터, 너비23미터, 높이 14미터의 거대한 방주를 만든다.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온갖 짐승들을 그 방주에 태우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150일 동안의 홍수가 계속되어 세상은 물의 심판을 받게 된다. 홍수가 끝날 무렵 세 번째로 날려 보냈던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고, 물이 거의 빠진 것을 깨달은 노아는 땅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려 방주의 문을 열게 되는데, 그 문이 닫히고 일 년여의 시간이 흐른 후였다. 모두가 방주에서 무사히 나오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언약의 표시인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가운데 모두 함께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 출연진 & 스태프



### 굴뚝청소부 쌤

Sam 제백규 Juliet 김희수 Jonny 고다운  
Sophie 함수민 Gay 최인호 Hughie 김태현  
Elizabeth 박소영 Helena 오세암 Cristins 노서은  
Monica 송효원 Samanta 홍찬주 Tina 황사민



예술총감독·지휘 이은순 연출 이범로

### 노아의 방주



쌤부인 | 정성실 함 | 김수민 야벳 | 문소은  
함부인 | 김규리 야벳부인 | 김수민  
노아부인의 친구 | 김현수 박하늘 오세린 이승연 홍가람  
동물들 | 장유빈 강동구 송효진 노유성 김하영 홍민하 이권희 강세련  
윤경원 이나현 임진홍 차서이 이주는 박민지 김나연 조유진  
임준우 김현아 박하나 이수현 함진우 조아연 김세림 박찬민  
한승우 이은결 김예송 김민형 홍성주 김여민 신혜서 이한결  
정선우 강서윤 김예진 재찬규 정연승 김지현 홍지원 박재영  
김환희 박진아 한원지 박사원 신하윤 전지우

반주 | 코리안체임버오페라오케스트라 연습반주 | 유지현 염진경 조가희 백지은 안무 | 배은식 지막 | 원혜린  
무대감독 | 최용석 기계감독 | 최정우 음향감독 | 이재호 김선미 조명감독 | 정대현 의상감독 | 양정임 의상팀 | 정명희 황정미

## 오산문화재단 상주단체 코리안체임버오페라단의 차기공연안내



일본 나리타국제교류협회와 함께하는 한·일170인의  
**친선 음악회 & 베토벤 『합창 교향곡』 4악장**

2013. 12. 7(토) 오후 7:30 오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참가단체 : 일본 나리타국제교류협회합창단, JAL항공 남성합창단, 노아 남성콰이어,  
오산청소년합창단, 오산시민합창단, 코리안체임버오페라단 전속가수